

삼성-LG, 미래사업 놓고 “패권다툼”

태양전지는 LG가 앞서 ... 2차전지·LED조명·바이오시밀러 분야도 접전

삼성그룹이 5대 신수종사업에 2020년까지 23조원을 투자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LG그룹과의 불꽃 튀는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의 청사진에 담긴 태양전지 등 5대 신규사업은 LG그룹이 4월에 내놓은 녹색 경영전략 상의 사업영역과 대부분 겹친다. 아울러 두 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해당사업을 일정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한 시한도 2020년으로 같다.

투자규모도 삼성이 23조원, LG가 20조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그동안 전자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돼온 두 그룹의 쟁패가 미래사업 영역으로 번지게 됐다.

삼성이 5월10일 이근희 회장 주재로 열린 신사업 사장단 회의에서 장기 투자계획을 결정한 5대 신수종사업은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LED(Light Emitting Diode), 바이오 복제약과 의료기기이다.

태양전지와 자동차용 전지, LED는 5월11일 LG그룹이 구분무 회장이 주재한 사장단협의회에서 확정된 그린 2020 비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분야다.

태양전지는 현재까지의 사업진척도만 보면 LG가 조금 앞서 있다.

삼성은 삼성전자가 2009년 9월 기흥사업장에서 생산용량 30MW(메가와트)급 결정형 태양전지 연구개발라인의 가동을 시작한 반면, LG전자는 구미에 연산 120MW급 결정형 태양전지 생산라인을 2009년 말 구축하고 연초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2011년까지 같은 규모의 2라인을 건설해 가동할 계획이다.

삼성은 먼저 결정형 태양전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 박막형 전지까지 손을 뻗칠 계획이며, LG는 LG디스플레이가 박막형 태양전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 시험생산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자동차용 전지 분야에서도 이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은 삼성SDI와 독일 Bosch가 투자한 SB리모티브를 통해 자동차용 전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BMW와 미국 델파이 등을 납품선으로 확보했다.

LG는 LG화학을 통해 제너럴모터스(GM)의 시보레 브랜드 전기자동차 볼트에 장착할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고, 중국 장안기차 등과도 제휴관계를 맺은 상태이다.

LED 조명사업에서도 삼성LED와 LG전자가 이미 백열등, 할로겐 등 대체용 제품을 내놓고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각 유통채널에서 판매경쟁에 돌입했다.

삼성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들고 나온 의약분야에서는 LG가 오래전부터 LG생명과학을 통해 신약개발에 투자해온 터여서 일전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이 삼성전자와 삼성의료원, 삼성테크윈 등을 앞세워 혈액진단기를 시작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의료기기 분야에는 LG전자가 적극적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케어의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3월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4월에는 세브란스병원과 의료기 개발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11>